

**동우컬럼**

보람

“기도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안수받고 병이 나았어요.”, “축복받아서
좋은 집 샀어요.”, “기도해주셔서 아이가 좋
은 대학에 갔어요.”, “승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쌓였던 피로가 한 방에 날아간다. 내가 이 맛에 목회한다. 정말 보람 있고 힘이 난다.

‘보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이다. 그러나 내 경험상으로 ‘보람’의 의미는 ‘나로 말미암아 상대가 기뻐하고 복을 받을 때 얻는 기쁨’이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은 못 입고 못 먹고 고생고생하면서도 자식이 쑥쑥 자라고, 공부 잘해서 대학도 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신다. 자식이 자라서 번듯한 가정이라도 이루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생각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찢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나음을 입을 때 보람을 느끼신다. 당신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됨을 보시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가끔 부활절을 기하여 우리가 깨진 계단을 오르고, 십자가를 매고 태형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그분의 보람을 빼앗는 꼴이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보람은 그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의 보람은 얻은 지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파질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70이 넘는 나이에 사흘에 걸쳐 지구 반대편인 페루까지 가는 것은 내가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 죄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자유함을 입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백발의 나를 쉬지 못하게 한다. 돈 준다고 오라고 해보라. 내가 가겠나.

보람된 삶,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사3:10).

난공사에 이익이 많다

페루(Peru)집회가 열리는 뿌갈빠(Pucallpa)라는 도시는 페루 동쪽 아마존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인구 약 20만의 도시이다. 이번 뿌갈빠 집회를 배설한 문갑권 선교사는 평범한 요리사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2008년 가족과 함께 페루로 향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마존 밀림 지역으로 선교의 길을 나섰다. 안데스산맥을 넘어 도착한 곳이 바로 뿌갈빠라는 도시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과 힘으로 현재까지 아마존 밀림 지역에 교회를 3개나 세웠다.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영상

다. 현지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
이 이단이라고 한다며 현지 목회자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신나게 집회를 준비
하던 문 선교사 가족으로선 전혀 예상하
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터지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현지 목회자들이 돕기 어렵
다며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페루 현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꿈의 계시를 통해 목사님의 페루집회가 매우 어렵고 목사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있으니 출국을 재고하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기도 하였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 정

아무리 살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바람 앞의 겨처럼 날아갈 뿐이다.

드디어 이현숙 선교사의 여권이 발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그리고 출국을 3일 앞둔 수요일, 목사님은 비행기표가 없던 이지훈 전도사의 티켓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시며 ‘난사형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다. ‘만사형통’으로 알아듣고 기뻐했지만, 목사님은 ‘난사형통이 오자(誤字)인 줄 알겠지만, 아니다! 난공사에 이익이 많다고 어려운 일에도 형통한 일뿐이라는 뜻이야!’라며 기뻐하



Cho Suk Lee
Pastor



CRUZADA EVANGELISTICA DE SANIDAD Y MILAGROS



22 al 24 de
septiembre del 2023



06:00 pm



Estadio Aliardo
Soria Pérez

Desde Corea del Sur,
por 1ra vez en Perú - Pucallpa

Para esto apareció el hijo de
Dios para deshacer las obras
del diablo.
1 Juan 3:8

Organiza: Andrés Mun
Coordinador: Ps. Josué Gonzales
Contacto: Ps. Josué Gonzales Bardales / 920 371 202

**ENTRADA
LIBRE**

을 모두 보았고, 그대로 따라 하며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스페인어권 선교를 통해 목사님의 명성이 중남미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터라 문선교사도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2023년, 기회가 왔다. 목사님도 그의 요청에 화답하여 적극 지원을 시작하셨다. 현지 목회자들에게 집회 계획을 알리고 정기적인 워크숍을 열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다. 포스터 및 현수막 디자인에, 방송광고 제작에, 또한 집회 스태프 구성 등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맥 빠지는 소식이 전해졌

부에서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의 여권 발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페루집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리란 반증이기도 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마귀의 역사 또한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페루를 제2의 멕시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니 악한 영들이 잠잠할 리가 없다. 당연한 저항이다. 목사님은 문 선교사에게 더욱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촉구하셨고, 우리 교회에는 페루집회를 위한 21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시며 전 교단적으로 합심기도를 요청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제

쳤다. 생각이 깊었다. 그럼 그 많은 안 좋은 계시들은 무엇이였을까? 그러다 무릎을 쳤다. 그래, 새천년 이래 15년 동안 거의 매달 해외집회를 나가셨으니 만약 그런 계시들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다녀오 시나보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멈춰있다가 더구나 첫 장거리 해외 일정이고, 처음 가는 나라이니 모두가 깨어서 이번 페루집회를 위해 합심기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셨다. 반드시 페루 뿌깔빠 지역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대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서울 성전 건축을 위해, 페루 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9~22)

절대로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서울교회 담임인 이시대 목사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이번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시대 목사 말에 콧방귀도 안 끼었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시대 목사가 본시 맘이 여리고 착해서 어머니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거든요. 크게 화도 못 내요. 그러니 어머니가 겁먹을 이유가 없지요. 제삿날이 돌아왔답니다. 당연히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제사 준비를 했지요. 이시대 목사가 나갔다가 들어오니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이시대 목사가, "엄마, 제사 안 지낸다고 했잖아." 해도 들은 체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시대 목사가 제사상에 발을 올리고는, "안 지낸다니까." 했더니, "미쳤냐?" 했답니다. 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시대 목사가 제사상을 발로 밀어버렸답니다. 난리가 났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니 형도 예수가 아순가에 미쳐서 제사상을 엮더니 너도 그러냐?" 하면서 제사를 둘째 형네 집으로 옮겼답니다. 그것도 용납이 안된 이시대 목사가 어머니에게, '제사 지내려면 둘째 형에게 가라'고 했고, 결국 어머니도 믿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없다

세상 모든 것은 타협해야 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이 사회는 분쟁만 남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어도, 독선이라는 말을 들어도,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꾀없이 주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저나 이시대 목사가 불효자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만은 어머니라고 해도 물려설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불편한 종교요, 편협한 종교처럼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타협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와 손을 잡고 선한 일을 해보자는, 그래서 사회를 평화하고 화평하자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요, 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요, 신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이 지은 것을 신이라 숭배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신5:8~9). 정말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 다. 화가 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을 깨

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屠戮)하라 하셨느니라"(출32:27)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한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사람이 죽인 숫자는 3천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사람이 그 형제 죽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출32:29).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당과 아세라 상을 제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는 지속적으로 나라가 강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결혼을 시켰습니다. 또

한 정략결혼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타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다 아합은 전사하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사태에 이르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 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19:2).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단3:16). '신앙에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단임네', '잘못됐네' 하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자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종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초석이 이단 아니다'라고 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맘대로 쓰쇼.'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추석입니다. 참 풍성하고 좋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늘 말하지만,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전10:20~21).

귀신이 됩니까? 불신자의 사후의 영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조상이 귀신입니다.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할머니 귀신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고 죽은 자가 귀신이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네 아버지가 귀신이나?" 하시며 분을 내다가 영영 무시기까지 했습니다. 장남으로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났고, 맏뎡생에게 이단 열차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을,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더욱이 며느리 신분으로 집안의 제사를 거부하는 일은 정말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제사는 안 됩니다.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타협해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단3:16). 완강하면 상대가 무너집니다. 제가 신앙의 외골수가 되자 형제들이, 어머니, 친척들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지 어디 믿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동생 둘이 목사가 되고, 여동생은 전도사가 되었고, 아들과 조카도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단6:7).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단6:10). 다니엘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단 30일'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0.0001%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소되었고, 며칠씩 굶은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셨습니까? 친히 찾아가서 사자 입을 봉하고 그를 구하셨고,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처럼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습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고기 맛도 먹어본 자가 안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얻은 지식은 절대 잊어먹지 않죠.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 보면, 심증팔구 학생 때까지는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맛있는 거 준다는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나 교회에 가면 멋진 오편나 이쁜 자매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하여 다닌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무슨 이유로든 교회 마당을 밟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 떠돌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져지는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맛을 봐야 그 맛 때문에 더 찾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 법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더 전도하는 법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맛을 알기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전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쁨과 아픔 등을 경험함으로써 더 성숙해지

는 것이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에 더 헌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먼저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걸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고기가 맛있다 하면 먹어봐야죠. 먹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룩한 시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에이, 나도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글썄 얼마나 해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자전거를 배우려 해도 몇 번씩 넘어지고 해봐야 터득하게 되는 건데 말이죠. 마치 몇 번 넘어진 후 “아이고, 난 안되나 봐. 못하겠어.”하는 것과 뭐가 다른니까?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맛을 보면 더욱 그 맛을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그 작은 경험이 불쏘시개가 되어 더 크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맛보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요.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나를 돌아보자

여보게!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네.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옷, 부드러운 신발... 자네도 그렇지? 그런데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더구먼. 날이 선 사람, 골라처럼 부글거리는 사람, 사사건건 말 트집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하고 싶지도 않아. 피곤하거든. 7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잘난 사람도 좋고, 맛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 으뜸은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

예전의 나 생각나나? 눈꼬리가 올라가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한 성깔 했었지. 그런데 세월에 씻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난 부분이 사라지고 둥글둥글해졌지. 자네도 인정하지? 눈꼬리가 내려왔잖은가. 단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니까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석에서 나를 만나면 다들 옆집 아저씨 같고, 친정아버지 같으며 좋아라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많이 달라진 게지.

여보게! 부드러운 사람은 ‘온유한 자’네. 온유(溫柔)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의미하지. 온유

한 자에게 사람이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야. 왜 그러는지 그 답이 성경에 있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 온유한 자는 모든 자와 화평하기 때문이야. 온유한 자로 인하여 가정이 화평케 되고, 교회가, 단체가 화평케 되는 것이니 어찌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지 않겠나.

내 옆에 사람이 없는가? 다 나를 떠나는가? 나와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는가? 그렇다면 주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성찰해봐야 하네. 진단컨대 내가 냉찬 거야. 내가 사나운 거고, 내가 화를 잘 내는 거야. 고로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거지. 내 마음에서 자갈을 골라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야 하네. 사울에게서 사람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물려든 이유는 사울의 마음 받은 자갈발인 반면 다윗의 마음 받은 옥토였기 때문 아니겠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마 5:5)고 하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온유함에 있다는 말씀이라네. 복 받기를 원하는가? 온유한 자가 되게나. 봄 햇살에 고드름이 녹더구먼.

봉우

위기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CEO는 없다. 그들은 잘 나갈 때도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의 불안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닥쳐올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늘 연구 분석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위기(危機)란 위험한 기회다. 곧 변혁과 혁신의 기회다. 위기 없는 인생이 없고, 위기 없는 기업이 없고, 위기 없는 신앙생활도 없다. 위기란 어쩌면 인생의, 기업의 영원한 파트너일지 모른다. 그 파트너로 인하여 즐지 않고 가고, 더욱 애쓰며 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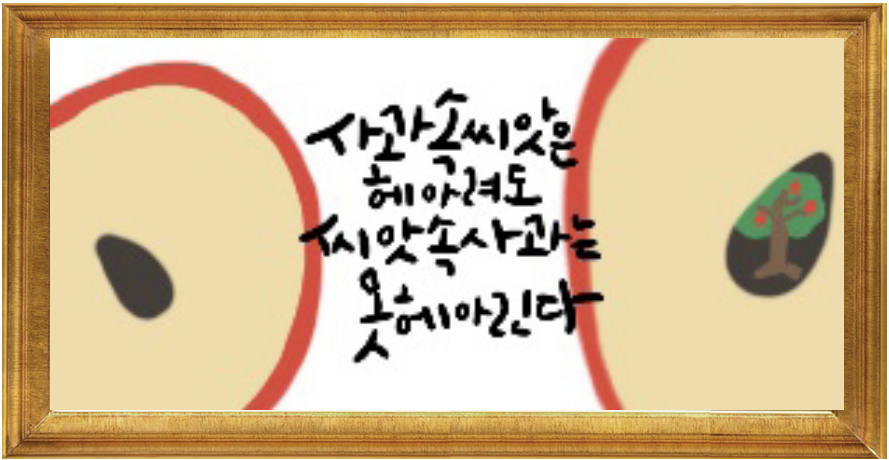
출애굽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 군대가 쫓아왔다. 애굽 군대는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있어 아무리 발걸음을 재촉해도 그리 빠를 수 없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에 홍해가 딱하니 나타났다.

절체절명의 상황,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이를 어쩌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세는 위기를 기회로 봤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14:13).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군대는 수장으로 전멸시키셨다.

서울교회가 성전 이전으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를 위기라 생각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신다.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위기를 이기는 법,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돈 주세요! 서울성전 주세요!

2023년 7월 23일 주일 밤 9시. 청소년 하계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중등부 인원이 최종 6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단상에 오르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있었다. 바로 전날 중고등부 토요예배에 중고등부 아이들만 18명이 참석했고, 이번 하계수련회의 목표 인원은 10명이었다. “하나님, 10명 아래로는 안됩니다. 무조건 10명 이상은 가야 합니다. 10명 이상 수련회에 보내주세요!”

그 후,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중고등부 교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다른 친구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라는 내용이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월요일 아침 7시. 중고등부 하계수련회에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11명이 예루살렘기도원으로 출발했다. 새신자 친구들은 성령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 내가 처음 문산교회에 왔을 때는 교육부서가 없었다. 교회의 미래가 될 교육부서를 놓고 계속 기도했고, 작년 수련회에 4명이 참석했는데 그 아이들이 밀알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셨다. 지금은 헌신하겠다는 교사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담당할 부장교사도 세워주셨다. 앞으로의 목표는 2024년 청소년 하계수련회에 20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환경을 바라보거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오지 않았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다. 오직 예수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목표판을 바라보고 기도로 달려왔다. 나는 아주 단순하게 “청소년 수련회 10명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응답해주셨다. 기도원 하계산상집회에 버스를 준비하고 기도하니 새신자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셨다. 골다공증 환자분을 위해 1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골밀도 검사에서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오직 총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서울 성전 건축뿐이다. “주여! 돈 주세요. 서울 성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장순천 목사

:: 간증 ::

:: 글꾼의 신앙 ::

기형이던 허리가 완치되었습니다



이번 기도원 산상집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지난날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간증 할까 합니다.

평신도 때 기도원에서 뜨거운 불을 받고는 능력이 나타나 감동 따라 세 번 작정기도를 하고, 또 꿈의 계시가 있어 신학을 갓습니다. 신학생도 시절부터 5톤 크레인이며, 승용차며 모두 다 드리고 물불 안 가리고 미친 듯이 봉사하면서 전국 열두 곳 이상 지교회를 봉사로 섬기며 다녔습니다. 인천 성전을 지을 때는 철제가 무너지면서 낙상하여 죽다 살아났는데,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나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 다. 심은 대로 난다지요. 정말 하나님 일에 심은 것은 그날의 천국에서도 보상받지만, 이 땅에서도 때에 따라 채워주시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스 목발을 하고도 인천 성전 가서 크레인 작업을 하기까지 했었지요. 세상일이였다면 안 했을 겁니다.

목사로 임명되기도 특공대로 봉사했는데, 2주 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영치가 돌아가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계속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아파서 김해의 전문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허리디스크 협착증에 더 큰 문제는 마지막 뼈 협착된 척추 맨 밑에서 엄지손가락 2개 굵기로 기형뼈가 거꾸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형뼈를 손가락 마디만큼 절단해 내고 뼈와 뼈 사이에 꺾쇠처럼 보철한 후 아래위로 보정 철심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올 것인지, 의사의 손길을 들어서 수술을 할 건지는 전적인 나의 결정이었습니다. 듣는 순간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수술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했던가요? 총회장 목사

님께 알린 후 여러 목사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나니 단톡방 알림에 찬반양론(수술과 믿음)으로 분분했고, 결국은 내가 결정 내려야 한다는 사실 앞에 잠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벌써 12년 전인가요? 전도사 시절 이미 디스크 협착증을 판정받았습니다. 통증에 아파서 화장실을 기어다니고 사역을 잠시 내려놓을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안 돼서 바로 새벽에 취침 중 뼈가 드드득 소리를 내면서 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도사 때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 집 처분, 첫 개척지 철거로 석 달 만에 3천만 원가량을 보상받아 문산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빚잔치를 하고 얼마 안 남은 돈으로 나와서 파주에 개척하여 몸부림칠 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후 의정부 예수중심교회 부담임으로 섬기던 3년, 훈련의 과정을 통과 후 아내와 같이 경남 양산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정기도 21일 후 이번엔 양산을 두고 21일 작정기도를 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맛보고 만납니다. 순종의 대가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님 은혜로 연고도 없고 생면부지의 땅 경상남도 양산에 시골인 줄 알고 왔더니 대학병원 부근 신도시로 옮겨주심에 한 번 더 감사하며, 모든 보금자리를 옮기고 특공대 목사님과 뜻있는 분들을 통하여 없어질 뻔한 교회가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엔 마귀의 역사 태클이 많다고 배웠지요.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데 순간 주위 부정적인 말들에 동화되어 ‘그래 4층보다 1층이 좋지. 내 돈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총회장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사단이 난 겁니다.

목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특공대 철수하라 하고, 자재도 다 빠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세상 말로 뎀봉이와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나 자신을 보고 기가 막혔지요. ‘이것이 권위에 도전이요, 불순종이구나.’ 나는 순종 잘한다는 소릴 듣고 싶었는데 반대로 불순종한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야기도 후 새벽이 지나고 핸드폰으로 깨달은 문자를 총회장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 대기자로 가라면 순종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창가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온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평안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주일 7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 목사야, 깨달았느냐? 4층 계단 힘들지. 하지만 젊은 사람 보내주시지 않겠어? 부정을 빼라.”는 목사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후 불호령이 철회되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혼방도 큼직하게 꾸몄 습니다. 이후 기적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1~2주 연속 양산교회 광고를 전 세계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단에서 이런 광고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공사 중 혼자 드리는 저녁 수요일에 지적장에 성도 한 분이 오시더니, 이후 어디선가 꾸역꾸역 15명의 성도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1년 반 만에 양 폐도 백배 이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개척하고 기도하며 안 아프고 사역 잘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금 허리라는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의 취미는 장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인데 어찌란 말인가.

“주여, 수술이 아닌 믿음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먹고,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서울성전 이전 작정기도에 발을 맞추어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양산교회 부근 정형외과에 가서 다시 X-레이에 CT도 찍고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불평불만을 회개합니다. 목사님 말씀에도 불평하며 역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생은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경남노회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특공대 목사님들께, 또한 물질 드린 모든 손길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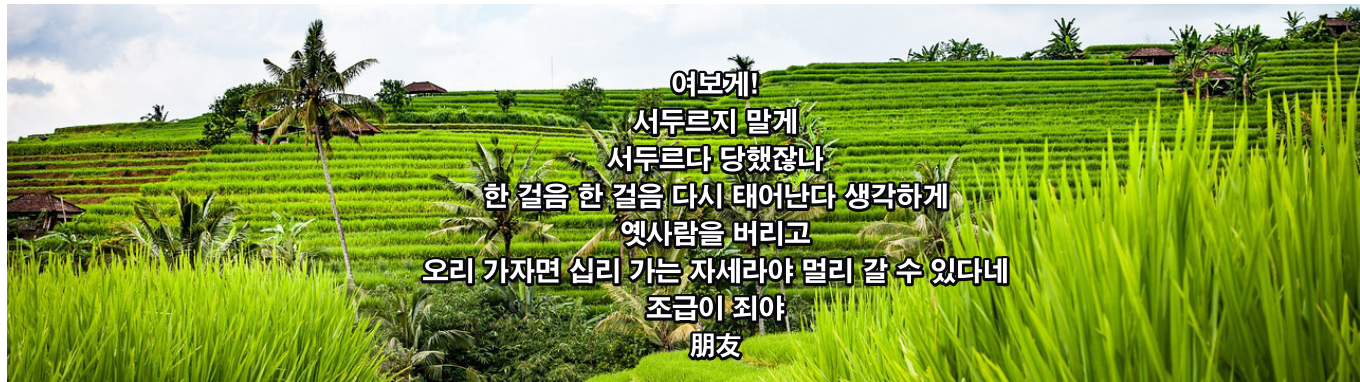
양산예수중심교회 권종성 목사

톨스토이의 고백록

《전쟁과 평화》,《부활》,《바보 이반》을 쓴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1879년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온 이야기를 저술했다. 그는 명문 백작의 4남으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다. 그는 카잔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쾌락을 얻고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진출하여 술과 도박으로 난잡한 사생활과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다. 그는 돈을 버는 일에 야망을 가지고 부모의 유산과 자신이 쓴 책으로 돈을 벌었고,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여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결혼 후 문학에 전념하여 불후의 명작인 《전쟁과 평화》,《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야망을 이루었으며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을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죽음 앞에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무의미함에 심한 정신적 방황에 빠졌다. 죽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과 철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알리고 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러시아의 농부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 질문들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나에 대한 현주소를 찾으려면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 나의 본질인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이승호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